smart is sexy

Orbi.kr

지문을 잘 읽어야
문제가 잘 풀린다

이윤범 지음

수능 기출 지문을 읽으며 배우는

비문학 공부법 핸드북

꾸미지 않아도 멋있고 예쁘지만 아직 그것을 모르는 10대,

치열하게 하루하루를 살고있는 20대와 30대,

그리고 그들의 위대한 부모님들에게

이 책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목 차

1부 왜 비문학 읽기 능력이 필요한가? • 13

2부 비문학을 읽는 황금열쇠 • 25

1장 황금열쇠를 찾기 위한 준비 :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떤 글을 읽을 것인가? • 27

① "문제풀이"만을 목적으로 글을 읽으면 안 되는 이유 • 27

② 어떤 글을 읽어야 하는가? : 공인된 기출시험의 지문 • 28

③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 : 속독과 정독 • 29

2장 황금열쇠를 찾기 위한 공식 : 읽기 능력은 어떤 공식으로 구성되는가? • 31

① 읽기 능력 공식 • 31

② 단어 능력 • 32

③ 추론 능력 • 33

④ 구성 능력 • 35

⑤ 읽기 능력 공식의 구성요소별 중요성 • 37

3장 첫 번째 황금열쇠 : 목적 • 39
① 글을 쓴다는 행위의 원인 • 39
② 글쓴이(출제자)의 입장 • 41
③ 설명을 목적으로 하는 글 • 42
④ 설득을 목적으로 하는 글 • 44

4장 두 번째 황금열쇠 : 구조 • 45
① 구조 이해의 중요성 • 45
② 구조를 파악할 때의 주의점 • 46
③ 구조를 파악하는 방법 • 48

5장 세 번째 황금열쇠 : 주제 • 52
① 주제의 의미 • 52
② 설명하는 글의 주제 • 53
③ 설득하는 글의 주제 • 55
④ 주제를 찾는 연습 • 57

6장 번외편 : 비문학 읽기 능력과 글을 쓰는 능력의 상관관계 • 61
① 읽기 능력과 글을 쓰는 능력의 연계성 • 61
② 비문학 글을 잘 쓰기 위한 연습 • 62

3부 황금열쇠를 적용하여 읽기 : 수능시험 비문학 기출 지문 • 65

황금열쇠를 적용하여 읽는 방법 • 67

1장 '20년도 수능시험 국어영역 기출 지문에 적용하기 • 72

① '20년도 수능 국어 홀수형 16~20번 • 72

② '20년도 수능 국어 홀수형 26~29번 • 81

③ '20년도 수능 국어 홀수형 37~42번 • 88

2장 '19년도 수능시험 국어영역 기출 지문에 적용하기 • 98

① '19년도 수능 국어 홀수형 16~20번 • 98

② '19년도 수능 국어 홀수형 27~32번 • 107

③ '19년도 수능 국어 홀수형 39~42번 • 116

3장 '18년도 수능시험 국어영역 기출 지문에 적용하기 • 125

① '18년도 수능 국어 홀수형 16~19번 • 125

② '18년도 수능 국어 홀수형 27~32번 • 132

③ '18년도 수능 국어 홀수형 38~42번 • 143

4장 '17년도 수능시험 국어영역 기출 지문에 적용하기 • 152
① '17년도 수능 국어 홀수형 16~20번 • 152
② '17년도 수능 국어 홀수형 33~36번 • 162
③ '17년도 수능 국어 홀수형 37~42번 • 171

4부 황금열쇠를 적용하여 읽기 : 다양한 응용 • 181

1장 수능시험 문학 기출 지문에 적용하기 • 183
① '19년도 수능 국어 홀수형 33~35번 (시) • 183
② '20년도 수능 국어 홀수형 30~32번 (소설) • 194

2장 수능시험 영어영역 기출 지문에 적용하기 • 204
① '20년도 수능 영어 홀수형 41~42번 • 204

3장 정부 발간 정책자료(보고서)에 적용하기 • 211
① 「2020 관광기업 지원 정책」(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 211

5부 부록 : 자기소개서 작성에 관한 간략한 조언 • 227

1부 왜 비문학 읽기 능력이 필요한가?

글을 읽는다는 것은 세상 사람 대부분이 마치 숨을 쉬고 음식을 먹는 것과 마찬가지로 매일 하는 행위로서 학습, 업무, 취미 등 많은 일의 기본이 된다. 특히 무언가를 배우는 과정에서 읽기의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 없는데, 우리가 배우는 많은 것들이 사전에 존재하는 정보를 "읽어서" 터득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중요한 "읽는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대학교 입시를 좌우하는 수능시험에는 국어영역이 있고, 행정고시 및 외교관을 선발하는 1차 시험(PSAT)에는 언어논리영역이 있으며, 법학적성시험(LEET)의 언어이해영역과 많은 기업의 인적성검사에서도 지문을 읽고 푸는 문제가 존재한다.

우리가 읽어야 하는 글에는 여러 종류가 있다. 흔히 중고등학교 때 대학입시를 목적으로 글을 읽으면서 크게 문학과 비문학이라는 두 가지 종류로 글을 분류했다. 문학은 시, 소설, 희곡 등이고, 비문학은 설명문, 논설문, 연설문 등이라고 배웠다. 대학에 입학하고 취업을 한 후에도 무언가를 읽는 과정을 통한 학습은 계속되는데, 일반적으로 이때 접하는 글은 비문학에 속하는 글이 많다. 상사에게 보고를 하거나, 연구결과를 작성하거나, 다수의 청중들 앞에서 발표를 하는 경우에 우리가 듣고 읽고

쓰는 글은 대부분 비문학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비문학을 읽는 능력"은 비단 대학입시를 준비하는 수험생 뿐만 아니라 대학생과 취업준비생, 회사원 등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한 능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치 숨을 쉬고 음식을 먹는 행위를 따로 배우지 않는 것처럼 읽기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에 대해서도 굳이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오히려 비문학을 읽고 이에 대한 "문제를 푸는 것"에는 관심이 많은데, 특히 대학입시를 위한 수능시험 언어영역의 경우 총 45문제 중 대략 20문제 전후가 "비문학을 읽는 능력"을 평가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서두에서 먼저 밝히고자 하는 것은 이 책에서는 "문제 푸는 기술"을 설명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이다. 문제를 푸는 기술은 각종 참고서나 학원, 동영상 플랫폼을 통해 얼마든지 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독자 여러분들이 동영상을 통해 국어영역 강사 등 전문가가 수험생 입장이 되어 문제를 푸는 과정을 지켜보면 매우 효율적이고 쉽게 느껴질 것이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다른 사람의 풀이법을 볼 때 고개를 끄덕이며 '나도 저렇게 해봐야지' 싶다가도, 시험장에서는 절대 그들처럼 문제를 풀 수 없다는 점이다. 매우 상투적인 비유를 들자면, 이는 아주 능숙한 낚시꾼이 낚시하는 장면을 옆에서 자세히 살펴본 이후에 '낚시 초보인 나도 혼자 낚시하러 가서 그 기술을 흉내내봐야지' 하는 격이다. 문제를 푸는 기술은 물론 중요하고, 시험을 앞둔 수험생이라면 더욱이 문제를 푸는 기술 또한 익혀야 한다. 그렇지만 '고기를 잡아주지 말고 잡는 방법을 알려주어라'라는 오래된 격언처럼 숙련된 사람들의 고기 잡는 기술이 본인

의 기술이 되는 것은 생각만큼 쉽지 않기에, 스스로의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해야할까? 이 책에서는 고기를 잡는 방법에서 더욱 근원으로 돌아가 '고기를 키우는 방법'부터 알려주고자 한다. 문제를 푸는 기술만 능숙한 사람은 결국 변수에 휘둘리기 쉽다. 그날따라 매우 어려운 지문 혹은 길이가 긴 지문이 출제되거나, 당일에 시간 배분을 잘못하여 집중력이 흐트러지게 된다면 이와 같은 기술만으로는 헤쳐나가기 어렵다. 그러나 글을 잘 읽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차분하게 대응할 수 있다. 낚시터에 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그 날따라 고기가 없거나 악천후 때문에 낚시를 할 수 없다면 아무리 기술이 좋은 낚시꾼이라도 도리가 없겠지만, 이런 때를 대비하여 차분히 고기를 키우는 방법을 익혀온 사람이라면 걱정이 없다. 키운 고기는 도망가지 않을 테니 말이다.

이렇듯 이 책의 목적은 독자 여러분들이 "비문학을 읽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글은 수능시험의 기출지문도 각각 한 편의 완결된 글로서 마주할 것이며, 이를 위해 책의 크기도 시험지 크기가 아닌 일반적인 책의 크기를 선택했다. 이 책이 독자들에게 수험서라기보다는(조금 극단적이기는 하지만) 소설책이나 자기개발서처럼 느껴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이다. 이 책을 읽은 후 독자들이 새로운 비문학 글을 접할 때 두려움을 가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특히 수능시험 등에 문제로 출제된 지문은 전문적인 배경지식을 필요로 하기보다는 지문을 효과적으로 잘 읽기만 해도 대부분 이해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 여러 번 읽고 상세하게 분석할 시간적 여유가 있으며 인터넷으로 배경지식까지 검

색할 수 있다면 글을 꼼꼼히 분석하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이 책에서는 그러한 상황이 아니더라도(예를 들어 시험장에서 처음 본 지문이라고 하더라도) 길지 않은 제한 시간내에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기술하고자 한다.

사실 이 책에 서술된 상당수의 방법은 많은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다. 다만 이를 실천하지 않았거나 실제 글을 읽는 데에 적용하는 방법을 몰랐을 뿐이다. 이를 위해 이 책에서는 먼저 비문학을 읽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 필요한 황금열쇠라고 할 수 있는 글의 "목적", "구조", "주제"에 대하여 설명한다. 대부분의 비문학 글은 목적과 구조, 그리고 주제를 파악하면 글의 전반적인 내용을 이해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세 가지 황금열쇠들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파악할 수 있는지 설명한다. 그 이후에는 이와 같은 세 가지 황금열쇠를 실제 비문학 글에 적용하여 어떻게 활용하는지 사례를 통해 설명할 것이다. 수능시험에 출제된 비문학 지문을 중심으로, 심지어는 비문학의 이해를 위한 황금열쇠가 문학 지문이나 외국어 지문에도 활용이 가능하다는 사실도 목격하게 될 것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책은 문제 푸는 기술을 알려주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하지 않았고, 비문학을 읽는 방법을 알려주어 독자들의 읽기 능력을 향상시키기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비문학을 잘 읽는 능력을 갖추게 되면 문제를 푸는 기술은 매우 쉽게 터득하게 될 것이다. 수능시험 뿐만 아니라 행정고시, 외교관후보자 시험 및 법학적성시험을 비롯한 공무원 시험, 기업 인적성검사 등 취업준비 분야 모두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자신한다. 이를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은 기존에 존재하는 수많은 비문학 지문 중 가장 잘 쓴 글, 구조적으로 잘 짜여진 글을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반복적으로 읽는 연습을 하는 것이다. 연습을 위한 좋은 글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기존에 수능시험 등 공인된 시험에 출제되었던 글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중 어렵고 생소한 글일수록 오히려 좋은 훈련이 될 수 있다. 이러한 글을 대상으로 반복적인 연습을 통해 비문학을 읽는 황금열쇠인 "목적", "구조", "주제"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고, 비판적인 눈으로 글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을 키워 글을 객관적으로 이해하며 더 나아가 자신의 생각의 틀을 활용하여 글을 분석하는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이 책에서 설명한 과정에 따라 "비문학을 읽는 능력"을 키운다면, 그 과정에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부가적으로 "글을 쓰는 능력"이 향상되었음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사실 글을 쓴다는 것은 자신이 이해한 정보를 기반으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것이기에, 읽는 능력이 쓰는 능력으로 연결된다는 사실은 놀라운 것이 아니다. 가수의 노래를 계속 따라부르는 법을 연습하다보면 그 속에서 노래를 잘 하는 방법을 터득하는 것처럼, 잘 쓰여진 글을 지속적으로 읽고 분석하는 연습을 한다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좋은 글을 쓰는 방법을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결국 글을 잘 읽는 사람이 글을 잘 쓸 수 있다.

요즘은 어린 학생들은 물론이고 성인들도 스마트폰을 통해 짧은 글을 읽는 것에 익숙하고 주로 동영상을 통해 정보를 얻는다. 이와 같은 정보들은 직관적이고 단편적으로 전달되기 때문에 조금만 긴 글을 읽으면 집중력이 흐트러짐은 물론이고, 글을 읽으면서 머릿속에서 자신만의 방식

으로 사고하며 정리하는 습관을 기르기가 어려워진다. 그러나 시시각각 변화하는 환경속에서 정보를 습득하기 위해서는 "비문학을 읽는 능력"이야 말로 다른 배움의 기본이 되는 필수적인 능력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음악, 미술, 체육 등의 예체능 기술을 배울 때 조차도 초반에는 설명을 읽으면서 원리를 익혀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기초체력을 튼튼히 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이 책을 읽는다면 분명 큰 도움이 될 것이고, 국어나 언어 과목은 물론이고 다른 모든 학습에 있어서 한 단계 성장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필자는 중고등학교에 다니던 시기부터 교육 및 학습방법에 관심이 많았고, 보다 효율적으로 가르치거나 배울 수 없을지를 늘 고민해왔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에 입학한 후에, 그리고 공무원 생활을 시작한 후에는 많은 학생들과 후배들에게 글을 읽는 방법에 대해 가르치거나 조언해주었다. 시중에 "어떻게 문제를 푸는지"를 설명하는 강의나 책은 많지만, "어떻게 읽는지"를 설명하는 강의나 책은 많지 않다. 굳이 비싼 학원 강의를 듣거나 족집게 강사를 만나지 않아도 잘 읽는 방법을 알고만 있다면 국어영역은 물론 다른 영역을 공부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실제로 많은 학생들과 후배들이 감사하게도 큰 도움을 받았다고 피드백을 주어 이와 같은 방법이 효과적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다.

한 번 더 강조하자면 이 책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방법들은 누구나 한 번 쯤은 들었을 법한 내용이다. 그러나 우리는 문제를 풀기 위해 빠른 시간안에 글을 파악하는 것에만 집중하다 보니 기본적인 읽기 능력을 배양하는 것의 중요성은 잊고 있었다. 야구선수가 안타를 치는 것에만 몰두

하다가 기본적인 체력과 근력 훈련을 소홀히 한 채 타격기술만을 연마한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어떻게 문제를 푸느냐?” 보다 중요한 물음은 바로 “어떻게 읽느냐?”이다. 문제를 푸는 방법을 배우는 것은 쉬운 길이면서 순발력을 기르고 임시방편을 마련하는 것이라면, 글을 어떻게 읽을지에 대해 배우는 것은 어려운 길이고 비판적인 사고 능력을 기르는 것이며 근본적인 체력을 키우는 작업이다. 이미 어렸을 때부터 매우 많은 책을 읽어서 스스로 잘 읽는 능력을 깨우친 사람은 행운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아쉽게도 그런 기회가 적었던 사람이라고 해도 분명히 방법은 있다. 짧은 분량의 글을 몇 편만 읽는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분석하며 반복적으로 읽는 연습을 한다면 분명히 점차 읽기 능력이 성장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강사나 다른 뛰어난 친구들이 글을 읽고 문제 푸는 것을 보면서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이기만 해서는 자신의 능력을 키울 수 없다. 독자 여러분들이 하루라도 빨리 자신만의 읽기 능력을 키우기를 강력히 권한다.

2부 비문학을 읽는 황금열쇠

2장 황금열쇠를 찾기 위한 공식

– 읽기 능력은 어떤 공식으로 구성되는가?

① 읽기 능력 공식

잘 읽기 위해서는 어떤 요소가 필요할까? 마치 축구선수의 능력을 체력, 테크닉, 지능, 순발력, 지구력으로 이루어진 5각형으로 평가하는 것처럼, 읽기 능력 역시 세부요소를 통해 표현할 수 있다. 각각의 요소는 물론 선천적으로 타고난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 후천적인 연습과 노력을 통해 배양할 수 있는 능력들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필자는 읽기 능력이 아래와 같은 공식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한다.

읽기 능력 = **단어 능력** + **추론 능력** + **구성 능력**

즉, 읽기 능력은 위 세 가지 능력의 합이며, 각각의 능력이 높아질수록 전반적인 읽기 능력이 향상된다. 그러나 각각의 능력을 어느 시기에 길러야 하는지, 이를 배양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인지에 있어서는 조금씩 차이가 있다.

② 단어 능력

첫 번째로 단어 능력은 말 그대로 단어를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지를 말하며, 글을 읽을 때 이 글과 관련된 배경지식을 사전에 얼마나 가진 채로 읽느냐와 연결된다. 초등학생, 중학생, 대학생, 그리고 회사원의 읽기 능력을 단순히 비교해 본다면 평균적으로 후자로 갈수록 읽기 능력이 향상된다. 가장 큰 이유는 시간에 비례하여 다양한 지식이 축적되어 이와 같은 배경지식을 바탕으로 글을 이해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수능시험에 출제된 과학 관련 지문의 단어들이 초등학생에게는 매우 생소할 수 있어도, 나이가 들면서 일반적으로 과학을 비롯한 다른 배경지식이 점점 축적되기 때문에 아무리 과학과 담을 쌓은 사람이라고 해도 어릴 때보다는 많은 과학 관련 단어를 알게 되어 상대적으로 친숙하게 느낄 것이다.

시험장에 가서 출제된 지문을 마주할 때 지문이 어려운지 쉬운지 첫인상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또한 단어 능력이다. 지문을 읽어나가기 시작할 때 일단 잘 모르거나 관심이 없는 단어들이 많이 나온다면 읽는 동안에도 집중력이 자꾸 떨어지고 전체 내용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반대로 다른 사람들은 별로 관심이 없는 분야이지만 본인은 관심이 많아 예전부터 해당 분야를 열심히 찾아보고 공부했다면 지문을 읽기 시작할 때부터 다른 사람보다 우위를 점하고 시작하는 것이다. 또한 아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 지문을 만날 경우 추가적으로 "자신감"이라는 보너스를 받게 되는데, 이는 좀 더 적극적으로 지문을 읽을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

그렇지만 본인이 잘 아는 단어가 많이 나온다고 해서 모든 경우에 지문을 더욱 잘 이해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아는 단어가 많이 등장한다는 이유만으로 스스로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착각하여 성의 있게 읽지 않거나, 글쓴이가 처음 의도한 주제와 달리 본인이 평소에 가지고 있던 생각에 근거하여 지문의 주제를 자신의 마음대로 섣불리 판단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 단어 능력이 뛰어난 사람은 전반적인 읽기 능력을 고양시키기에 아주 좋은 무기를 가지고 시작한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단어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많은 책을 읽거나 여러 가지 경험을 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오랜 시간을 투자하여 많은 정보를 습득해야하기 때문에 단시간에 큰 성과를 얻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③ 추론 능력

두 번째로 추론 능력은 주어진 내용을 바탕으로 앞으로의 내용을 생각해내는 능력이다. 많은 이들이 좋아하는 추리소설은 주어진 단서를 통해 범인을 찾아내는 내용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비문학 지문을 읽을 때도 이미 읽은 내용 속에서 주어진 정보를 이용하여 다음에 나올 내용이나 글쓴이의 생각을 찾아내어야 빠르고 정확하게 글을 이해할 수 있다.

추론 능력이 좋은 사람의 특징으로는 관찰력이 좋은 것과 입장을 바꾸어 생각하는 능력이 좋다는 것, 그리고 순발력 또한 뛰어나다는 것을 꼽을 수 있다. 이미 읽은 글의 내용 중에서 다른 사람들은 놓칠 수 있는 내용을 예리하게 찾아내고, 글쓴이의 입장이 되어 과연 글쓴이가 이후에

어떤 내용에 대해서 논하게 될지를 미리 예상하며, 재빠르게 주어진 정보를 활용하여 신속하게 사고한다.

추론 능력을 키우는 가장 좋은 방법 역시 많은 글을 읽어보는 것이다. 많은 표본을 접할수록 글쓴이가 어떤 방향으로 글을 서술할지, 이 글을 통해 어떤 생각을 표현하고 싶은지 점차 쉽게 알아낼 수 있다. 마치 많은 사건을 해결해 본 탐정일수록 새로운 사건을 마주해도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시간의 제약 등으로 인해 많은 글을 읽을 여건이 안 된다면 글을 읽을 때 최대한 글에 몰입하여 글의 흐름에 집중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된다. 글쓴이에게는 긴 글이든 짧은 글이든 이 글을 쓴 목적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글쓴이의 입장에 몰입하여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글로 표현하면 좋을지 고민해보는 연습이 필요하다. 한 걸음 더 나아가, 한 편의 완성된 글을 읽으면서 글쓴이가 전달하고자 했던 핵심, 즉 글의 주제가 무엇인지에 대해 글을 읽는 내내 고민하며 찾으려 노력해야 한다. 이와 같은 능력은 물론 연습하는 시간에 비례하여 배양되지만, 단어 능력에 비해서는 연습을 통해 비교적 빠른 시간 내에 상승시킬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한 편의 글을 읽더라도 이에 몰입하여 글쓴이의 입장을 헤아리며 읽으려는 태도이다. 한 편의 글을 여러 번 읽어보며 다양하게 추론해 보는 것 또한 좋은 연습 방법이 될 수 있다.

정리하자면, 결국 추론하는 능력은 글이 어떻게 전개될지를 예측하는 능력인데, 이는 글쓴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글을 썼으며 어떤 주제를 표현하고자 하는지에 대해 고민하고 탐구할 때 배양할 수 있는 능력

이다. 글은 전반적으로 글쓴이가 글을 쓴 목적에 부합하여 전개될 것이며, 결국 주제라는 목표를 향해 수렴해 갈 것이기 때문이다.

④ 구성 능력

세 번째로 구성 능력은 글의 구조를 이해하는 능력이다. 아무리 짧은 글이라도 글의 각 부분들은 유기적으로 구성되어 각자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어떤 문단을 어떤 순서로 배치할지에 대하여 글쓴이는 상당한 고민을 통해 현재의 구조를 결정했을 것이다. 즉, 글의 구조를 이해한다는 것은 글쓴이가 글을 쓰며 머릿속에 그려놓았던 설계도를 이해한다는 뜻이다.

글은 단어로 시작하여 단어가 모여 문장이 되고, 문장이 모여 문단이 된다. 수능시험에 출제되는 국어영역의 비문학 지문을 예로 들어 보자면, 한 편의 글은 대체적으로 4~6개 정도(최근에는 5개의 문단인 경우가 가장 많기는 하지만, 8개의 문단으로 이루어진 난이도 높은 지문도 출제된 적이 있다)의 문단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각 문단들은 글쓴이로부터 자신만의 역할을 부여받았고, 문단들 간에도 긴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글쓴이가 이 글을 통해 나타내고자 하는 주제를 적절히 전달하고자 노력한다. 문단들 중에는 상대적으로 중요한 문단도 있고 그렇지 않은 문단도 있다. 다른 문단을 도와주기 위한 역할의 문단도 있으며 사례를 설명하기 위한 문단도 있다. 따라서 글을 구성하는 문단들 간의 구성을 이해한다는 것은 결국 각 문단의 역할을 이해한다는 의미이며, 문단들의

역할 구분을 통해 전체 글에서 어느 부분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파악한다는 것이다.

더불어 중요한 문단을 중심으로 각 문단들 간의 관계를 파악하면 글을 단순하고 단편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입체적으로 이해하게 된다. 입체적인 글 읽기는 어려운 것이 아니다. 마치 평탄한 지형위에 산이 솟고 물이 흐르는 것처럼 글을 구성하는 모든 부분이 똑같이 평평하게 보이지 않고 좀 더 중요한 부분은 도드라져 보인다는 뜻으로, 결국 글의 전반적인 구조를 이해하면서 글을 읽는다는 의미이다.

이와 같은 구성 능력이 좋은 사람은 글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이해하여 정리할 수 있고 글의 전반적인 내용을 쉽게 요약할 수도 있으며,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다. 즉, 자신의 이해를 바탕으로 글을 소화하여 비판적으로 글을 읽을 수 있는 기본이 되는 것이 바로 구성능력이다. 글의 구성을 파악하면서 글쓴이가 중요하다고 생각한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고, 만약 내가 글을 썼다면 이렇게 쓰지 않고 저렇게 썼을 것이라고 대안을 제시할 수도 있다. 이 모든 비판적 사고는 글의 구조를 파악하는 구성능력을 갖추었을 때 비로소 시작될 수 있는 것이다. 바꿔 말하면 비판적인 사고를 할 때 구성능력을 기를 수 있으므로, 글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기 보다는 글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대안을 제시해보면서 머릿속에서 재구성하는 연습을 할 때 구성능력을 배양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다수의 글을 얕게 읽는 것보다는 한 편의 글을 반복적으로 읽더라도 깊게 읽고 분석해보는 방법이 도움이 된다.

⑤ 읽기 능력 공식의 구성요소별 중요성

지금까지 설명한 읽기 능력을 구성하는 요소인 단어 능력, 추론 능력, 구성 능력은 모두 중요한 능력이다. 어느 하나만으로는 읽기능력을 신장시킬 수 없으며, 세 가지의 능력이 골고루 배양될수록 글을 읽는 능력이 쑥쑥 성장할 것이다. 그러나 이들 능력간에 굳이 차이점을 설명하자면, 단어 능력–추론 능력–구성 능력의 순서로 뒤로 갈수록 점점 더 깊은 사고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단어 능력은 각각의 단어 및 이와 관련된 배경지식을 본인이 알고 있는지 또는 모르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비교적 가부가 명확한 문제인 것이다. 추론 능력은 뒤에 어떤 내용이 전개될지를 예측하는 것이고, 결국 글쓴이가 어떤 목적을 갖고 어떤 주제를 이야기 하고자 이 글을 썼는지 짐작하는 능력이다. 이는 기존의 내용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생각을 확장시켜 나가는 과정이다. 구성 능력은 글의 전반을 구성하는 각 문단을 비롯하여 각 구성요소들간의 관계를 바탕으로 글을 입체적으로 이해하며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능력이다. 이를 위해서는 종합적으로 글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비판적이고 객관적인 시각에서 글을 평가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보다 더 깊은 사고가 필요하다고 해서 해당 능력이 더 중요하다는 뜻은 아니다. 세 가지 요소 모두 글을 잘 읽기 위해 필수적인 요소이며, 우리는 이들 능력을 신장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읽기 능력 공식의 구성요소]

이후에는 이와 같은 읽기 능력을 구성하는 요소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여, 실제로 비문학 지문을 읽을 때 필요한 세 가지 황금열쇠에 관하여 알아보겠다.

3부

황금열쇠를 적용하여 읽기

– 수능시험 비문학 기출 지문

③ '17년도 수능 국어 홀수형 37~42번

보험은 같은 위험을 보유한 다수인이 위험 공동체를 형성하여 보험료를 납부하고 보험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지급받는 제도이다. 보험 상품을 구입한 사람은 장래의 우연한 사고로 인한 경제적 손실에 ⓐ대비할 수 있다. 보험금 지급은 사고 발생이라는 우연적 조건에 따라 결정되는데, 이처럼 보험은 조건의 실현 여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재화나 서비스가 달라지는 조건부 상품이다.

위험 공동체의 구성원이 납부하는 보험료와 지급받는 보험금은 그 위험 공동체의 사고 발생 확률을 근거로 산정된다. 특정 사고가 발생할 확률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동안 발생된 사고를 바탕으로 그 확률을 예측한다면 관찰 대상이 많아짐에 따라 실제 사고 발생 확률에 근접하게 된다. 본래 보험 가입의 목적은 금전적 이득을 취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보상받는 데 있으므로 위험 공동체의 구성원은 자신이 속한 위험 공동체의 위험에 상응하는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 공정할 것이다. 따라서 공정한 보험에서는 구성원 각자가 납부하는 보험료와 그가 지급받을 보험금에 대한 기댓값이 일치해야 하며 구성원 전체의 보험료 총액과 보험금 총액이 일치해야 한다. 이때 보험금에 대한 기댓값은 사고가 발생할 확률에 사고 발생 시 수령할 보험금을 곱한 값이다. 보험금에 대한 보험료의 비율(보험료/보험

금)을 보험료율이라 하는데, 보험료율이 사고 발생 확률보다 높으면 구성원 전체의 보험료 총액이 보험금 총액보다 더 많고, 그 반대의 경우에는 구성원 전체의 보험료 총액이 보험금 총액보다 더 적게 된다. 따라서 공정한 보험에서는 보험료율과 사고 발생 확률이 같아야 한다.

물론 현실에서 보험사는 영업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보험료에 반영하기 때문에 공정한 보험이 적용되기 어렵지만 기본적으로 위와 같은 원리를 바탕으로 보험료와 보험금을 산정한다. 그런데 보험 가입자들이 자신이 가진 위험의 정도에 대해 진실한 정보를 알려 주지 않는 한, 보험사는 보험 가입자 개개인이 가진 위험의 정도를 정확히 ⓑ파악하여 거기에 상응하는 보험료를 책정하기 어렵다. 이러한 이유로 사고 발생 확률이 비슷하다고 예상되는 사람들로 구성된 어떤 위험 공동체에 사고 발생 확률이 더 높은 사람들이 동일한 보험료를 납부하고 진입하게 되면, 그 위험 공동체의 사고 발생 빈도가 높아져 보험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의 총액이 증가한다. 보험사는 이를 보전하기 위해 구성원이 납부해야 할 보험료를 ⓒ인상할 수밖에 없다. 결국 자신의 위험 정도에 상응하는 보험료보다 더 높은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람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정보의 비대칭성에서 비롯되는데 보험 가입자의 위험 정도에 대한 정보는 보험 가입자가 보험사보다 더 많이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보험사는 보험 가입자의 감춰진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

하다.

우리 상법에 규정되어 있는 고지 의무는 이러한 수단이 법적으로 구현된 제도이다. 보험 계약은 보험 가입자의 청약과 보험사의 승낙으로 성립된다. 보험 가입자는 반드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중요한 사항'을 알려야 하고, 이를 사실과 다르게 진술해서는 안 된다. 여기서 '중요한 사항'은 보험사가 보험 가입자의 청약에 대한 승낙을 결정하거나 차등적인 보험료를 책정하는 근거가 된다. 따라서 고지 의무는 결과적으로 다수의 사람들이 자신의 위험 정도에 상응하는 보험료보다 더 높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거나, 이를 이유로 아예 보험에 가입할 동기를 상실하게 되는 것을 방지한다.

보험 계약 체결 전 보험 가입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리면 고지 의무를 위반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에 우리 상법은 보험사에 계약 해지권을 부여한다. 보험사는 보험 사고가 발생하기 이전이나 이후에 상관없이 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해지권 행사는 보험사의 일방적인 의사 표시로 가능하다. 해지를 하면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게 되며, 이미 보험금을 지급했다면 그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법에서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위반한 자에게 그 의무를 이행하도록 강제하거나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과 달리, 보험 가입자가 고지 의무를 위반했을 때에는 보험사가 해지권만 행사

할 수 있다. 그런데 보험사의 계약 해지권이 제한되는 경우도 있다. 계약 당시에 보험사가 고지 의무 위반에 대한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해 알지 못한 경우에는 보험 가입자가 고지 의무를 위반했어도 보험사의 해지권은 ⓓ배제된다. 이는 보험 가입자의 잘못보다 보험사의 잘못에 더 책임을 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 보험사가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에도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는데, 이는 양자의 법률관계를 신속히 확정함으로써 보험 가입자가 불안정한 법적 상태에 장기간 놓여 있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고지해야 할 '중요한 사항' 중 고지 의무 위반에 해당되는 사항이 보험 사고와 인과 관계가 없을 때에는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그렇지만 이때에도 해지권은 행사할 수 있다.

보험에서 고지 의무는 보험에 가입하려는 사람의 특성을 검증함으로써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료가 부당하게 ⓔ전가되는 것을 막는 기능을 한다. 이로써 사고의 위험에 따른 경제적 손실에 대비하고자 하는 보험 본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다.

목적

이 글은 독자들에게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알려주기 위해서 쓴 글이다. 무엇을 설명하고자 하는지 살펴보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꽤 많이 들어

보았던 단어에 관하여 설명하고자 하는데, 그것은 바로 “보험”이다. 보험은 우리에게 매우 친숙한 단어이고 실제로 보험에 가입한 경험이 있는 독자도 있을 것이며, 광고나 주변사람 등을 통해서 간접적으로도 많이 접해보았을 것이다.

보험에 관하여 설명할 만한 내용은 무궁무진하지만, 이 글은 보험을 하나의 상품으로 보고 접근하고 있다. 상품이라고 하면 상품의 가격이 정해지기 마련인데, 보험에는 “보험료”라는 가격이 매겨진다. 글쓴이는 보험과 관련하여 이 보험료에 관하여 설명하고 있고 이와 관련된 중요한 개념으로서 “고지 의무”를 설명하고 있다. 즉, 이 글은 보험이라는 개념을 처음에 소개하고 보험의 가격인 보험료에 대하여 설명한 뒤에, 후반부에는 주로 고지 의무와 관련된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위험 공동체”, “보험료율”, “계약 해지권” 등의 단어가 등장하는데, 각각의 단어는 보험 → 보험료율 → 고지 의무로 이어지는 글의 흐름에서 중요한 내용들을 보조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글쓴이의 주요 집필 목적은 보험 → 보험료율 → 고지 의무에 관해 설명하고자 하는 것임을 명백히 이해하고 글의 구조와 주제를 파악해 나가야 한다. 특히 글의 순서에 따를시 “보험”과 “보험료율”이라는 개념은 이후에 글의 절반 가까이를 할애하고 있는 “고지 의무”에 관한 설명을 이끌어내기 위한 사전 단계라고 할 수 있으므로, “고지 의무”의 개념을 이해하는 것에 조금 더 중점을 두는 것이 글쓴이의 목적을 올바로 이해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구조

이 글은 총 6개의 문단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각의 문단은 길이가 일정하지 않은데, 1번 문단과 6번 문단이 상대적으로 길이가 짧다. 1번 문단은 글 전체의 서두로서의 역할을 하며, 6번 문단은 5번 문단을 부연 설명하는 역할을 하기에 상대적으로 길이가 짧다고 이해할 수 있다.

구조를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1번 문단은 보험의 정의로부터 글을 시작하고 있다. 흥미로운 것은 1번 문단의 첫 문장은 보험을 "제도"로서 설명하지만, 1번 문단의 마지막 문장은 보험을 "상품"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이 보험을 "상품"으로서 정의하는 것은 2번 문단에서 이 "상품"의 가격을 설정하는 근거가 된다. 2번 문단은 이처럼 "상품"으로서 보험의 가격인 보험료가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이어서 3번 문단에서는 이와 같은 보험료를 공정하게 산정하는 것이 어려운 이유에 관하여 설명하는데 이는 바로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으로, 보험 가입자가 보험사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도입된 제도가 바로 4번 문단부터 설명되는 고지 의무이다. 4번 문단은 이와 같은 고지 의무가 무엇인지 설명하고 있다. 이어서 5번 문단은 고지 의무를 위반했을 때에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즉 보험사는 이에 어떻게 대처하는지 설명하고 있는데 이때 보험사가 행사하는 것이 바로 보험을 해지할 수 있는 해지권이다. 6번 문단은 이러한 내용의 5번 문단에 이어서 고지 의무가 갖는 의의를 간단히 부연 설명하고 있다.

앞서 이 글의 목적이 보험 → 보험료율 → 고지 의무로 이어지는 내용을 설명하는 것이라고 했다. 글쓴이는 보험의 개념 정의로부터 시작하여 고지 의무에 이르기까지 부드러운 흐름으로 연결하면서 각각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다.

[보험 → 보험료율 → 고지 의무에 대한 설명의 흐름]

개념	문단	주요내용
보험	1번	보험의 정의
연결 : 보험은 조건부 "상품"이다 ⇒ 상품에는 가격을 매길 수 있다		
보험료	2번	보험료(가격)를 산정하는 방법
	3번	보험료를 공정하게 산정하는 것의 어려움
연결 : 보험료는 보험 가입자와 보험사 간의 정보 비대칭성으로 인해 공정한 산정이 어렵다 ⇒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결해야 한다		
고지 의무	4번	고지 의무의 개념
	5번	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6번	고지 의무의 의의

이 글에서는 특히 보험 → 보험료율 → 고지 의무로 이어지는 흐름속에서 각 개념들이 등장하는 배경에 주목해야 한다. 각 개념은 갑자기 등장하는 것이 아니며, 글에서는 개념간 또는 문단간을 연결하는 접착제 역할을 맡고 있는 부분이 존재한다. 즉, 보험료율은 보험이 상품이라는 배경 하에 등장한다. 또한 고지 의무는 보험료율을 공정하게 산정할 수 없는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로서 등장한다. 이처럼 설명문에서는 글쓴이가 설명하고자 하는 개념들이 등장하는데, 이와 같은 각

각의 개념들은 아무 개연성 없이 갑자기 등장하는 것이 아니다. 각 개념들 간에는 유기적인 관계가 있으며 글쓴이는 이를 구조화 하여 각 개념들이 등장하는 흐름을 구성하고, 이를 통해 글을 보다 짜임새 있게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독자들 입장에서도 만약 이와 같은 흐름이 없이 마구잡이로 낯설고 어려운 개념이 나타난다면 이해하기가 어렵겠지만, 각 개념들이 관계를 맺으며 등장한다면 이 관계를 근거로 하여 개념들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주제

다시 한번 글쓴이가 이 글을 쓴 목적과 관계가 깊은 개념들을 짚어보자면 보험 → 보험료율 → 고지 의무로 이어지는 세 개의 개념들이 주를 이룬다. 따라서 이 글을 요약하거나 주제를 표현할 때도 이 개념들이 중심을 이루어야 할 것이다. 또한 보험 → 보험료율 → 고지 의무의 단계에서 뒤로 갈수록 개념이 구체화 되면서 더욱 세부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즉, 보험의 가격에 해당하는 것이 보험료율이고, 이 보험료율을 공정하게 산정하기 위한 요소로 고지 의무가 필요한 것이다.

보험의 개념에 관해서는 맨 앞의 1번 문단에서만 설명하고 있고 보험은 보험료율과 고지 의무라는 개념을 설명하기 위한 전제가 되므로, 주제를 표현하는 데에는 보험보다는 보험료율과 고지 의무가 더욱 중요한 개념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의 개념을 잘 연결하여 주제를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보험료율을 공정하게 산정하기 위한 제도가 고

지 의무이다"라고 표현한다면 보험료율과 고지 의무 두 단어간의 관계를 잘 나타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글의 주제를 이와 같이 간단하게만 나타낸다면 고지 의무에 대해서 글쓴이가 상당 부분을 할애하여 설명한 5번 문단을 간과하게 된다. 5번 문단은 보험 가입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관하여 설명하고 있으며, 이때 보험사는 보험을 해지할 수 있는 해지권을 갖는다. 따라서 이를 주제에 반영한다면 "보험료율을 공정하게 산정하기 위한 제도가 고지 의무이며, 보험 가입자가 고지 의무를 위반하면 보험사는 보험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 1번~6번 문단 중에 가장 길이가 길고 그만큼 자세한 내용이 설명되어 있는 5번 문단의 주요내용을 주제에 포함시킴으로써 글쓴이의 입장이 더 많이 반영된 주제로 나타낼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이 설명문은 보험이라는 일반적이고 넓은 개념에서 시작하여 이와 관련된 보험가입자의 고지 의무를 설명하고 있으며, 그 중간단계로서 보험이라는 상품의 가격인 보험료율을 등장시키고 있다. 이때 문단 간의 상대적인 길이에서도 볼 수 있다시피 글쓴이가 가장 중요하게 설명하고 싶었던 내용은 고지 의무이며, 이를 반영한 주제야말로 글쓴이의 생각을 충실히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4부

황금열쇠를 적용하여 읽기

– 다양한 응용

2장 수능시험 영어영역 기출 지문에 적용하기

① '20년도 수능 영어 홀수형 41~42번

For quite some time, science educators believed that "hands-on" activities were the answer to children's understanding through their participation in science-related activities. Many teachers believed that students merely engaging in activities and (a)manipulating objects would organize the information to be gained and the knowledge to be understood into concept comprehension. Educators began to notice that the pendulum* had swung too far to the "hands-on" component of inquiry as they realized that the knowledge was not (b)inherent in the materials themselves, but in the thought and metacognition* about what students had done in the activity. We now know that "hands-on" is a dangerous phrase when speaking about

learning science. The (c)missing ingredient is the "minds-on" part of the instructional experience. (d)Uncertainty about the knowledge intended in any activity comes from each student's re-creation of concepts — and discussing, thinking, arguing, listening, and evaluating one's own preconceptions after the activities, under the leadership of a thoughtful teacher, can bring this about. After all, a food fight is a hands-on activity, but about all you would learn was something about the aerodynamics* of flying mashed potatoes! Our view of what students need to build their knowledge and theories about the natural world (e)extends far beyond a "hands-on activity." While it is important for students to use and interact with materials in science class, the learning comes from the sense-making of students' "hands-on" experiences.

* pendulum : 추(錘)
* metacognition : 초(超)인지
* aerodynamics : 공기 역학

목적

이 글은 영어로 되어있기 때문에 우선 문학에 속하는 글인지 비문학

에 속하는 글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때 하나하나 완벽히 한글로 번역하기 전에도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비문학 글임을 알 수 있다. 첫 번째로 “science”, “educators”, “knowledge”, “theories” 등의 단어가 빈번하게 등장하는데, 이를 통해 주로 다루고자 하는 내용이 지식이나 이론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라고 유추할 수 있다. 두 번째로 이 글에는 등장인물이나 사건이 나타나지 않는다. 따라서 등장인물과 그들이 벌이는 사건을 통해서 전개되는 소설이나 희곡 등 문학에 속하는 글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 글이 비문학에 속한다고 판단했다면 글쓴이의 구체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범위를 좁혀볼 수 있다. 글을 시작하며 글쓴이는 ‘오랜 기간동안 science educators가 어떤 사실을 믿었다’라고 소개하고 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기존의 이론 혹은 학설의 소개로 글을 시작하는 경우, 이후 내용에서는 이에 대한 검증을 전개하는 경우가 많다. 이 글에서도 기존의 이론을 설명하면서 이 이론의 한계와 관련하여 “dangerous”라고 표현하며, 이에 대응한 새로운 이론을 제시하고 있다. 즉, 이 글은 기존의 이론을 소개하면서 이를 검증하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이론을 제시하는 형태의 설명하는 목적을 가진 글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글이 기존의 이론과 새로운 이론을 설명하여 독자들을 이해시키는 것만을 목적으로 삼는 것은 아니다. 이는 글쓴이가 주로 설명하고자 초점을 맞추는 대상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고찰하는 과정에서 알 수 있다. 이 글의 서두에 등장하면서 따옴표로 묶인 “hands-on”(행동중심)이 기존의 이론이라고 한다면, 이에 대응하여 글쓴이가 중시하는

새로운 개념은 역시 따옴표로 묶인 “minds-on”(사고 중심)이다. 이 두 가지는 대비되는 관점으로, 글쓴이는 기존의 “행동 중심”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이보다는 “사고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 옳은 방향임을 암시하고 있다. 즉, 이 글의 주요목적은 “hands-on”과 “minds-on”에 관하여 설명하는 것이지만, 글쓴이는 기존의 “hands-on”을 중시하는 관점을 탈피하여 이제는 “minds-on”을 중시해야 함을 강조한다. 따라서 이 글은 위의 두가지 이론에 관하여 설명하는 목적을 가짐과 더불어 “minds-on”을 중시해야 한다는 글쓴이의 의견을 피력하는 목적도 동시에 지닌다고 할 수 있다.

구조

이 글은 짧은 분량의 한 개의 문단으로 이루어진 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이론에 대한 검증과 더불어 새로운 이론을 제시하면서, 이를 논리적으로 전개하기 위한 구조를 갖추고 있다. 글의 서두에서 기존 “행동 중심”에 관하여 소개한 후에 점차 이에 대해 비판적인 어조를 강화하며, 결국 이와 같은 이론이 위험하다고까지 표현하고 있다. 이어서 이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사고 중심”이라는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 이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이와 같은 글의 구조는 글쓴이의 어조가 변화되는 것을 기준으로 형성되어 있다. 기존 이론에 대한 비판의 강도를 점차 높여가면서 그 절정에서 새로운 이론을 소개하고 이와 같은 새로운 이론을 중시해야 함을 암

시하고 있다. 기존 이론에 대한 비판의 강도가 가장 높은 지점은 새로운 이론을 소개하기 직전인데, "Educators began to notice"로 시작하여 ""hands-on" is a dangerous phrase"라고 표현하는 부분이 글쓴이의 비판적인 어조가 가장 강함과 동시에 새로운 이론이 등장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행동 중심"과 "사고 중심"에 대한 어조 변화]

이처럼 한 문단으로 이루어진 짧은 글 안에서도 글쓴이는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구조를 형성하기 마련이다. 이 글에서 글쓴이는 "행동 중심"과 "사고 중심"을 각각 설명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이에 더하여 새로운 이론인 "사고 중심"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설득하기 위하여 기존 이론인 "행동 중심"에 대한 비판의 강도를 더하면서 새로운 이론을 등장시킨 후에 이를 부연 설명하고 있다. 무작정 기존 이론이 잘못됐다고 하면

설득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왜 "사고 중심"이 더 중요한지에 관한 근거를 설명하고 있는데, 단순히 행동을 실행해 보는 것으로는 부족하며 배우는 사람 스스로가 내재화·개념화해야 한다는 글쓴이의 논리는 충분히 설득력을 갖는다.

설명하는 글 또는 설득하는 글에서 이처럼 기존의 이론 혹은 타인의 주장 등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검증을 진행한 후 새로운 이론 혹은 글쓴이의 주장을 전개하는 것은 가장 보편적이면서도 효과적인 글의 구조이다. 이때 중요한 것은 기존의 이론 혹은 타인의 주장에서 어떤 부분이 한계를 갖는지 명확히 서술하는 것인데, 이와 같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새로운 이론 혹은 글쓴이의 주장이 등장하기 때문이다. 즉, 기존 이론이나 주장의 한계가 새로운 대안의 배경이 되는 것이며, 이를 연결고리로 하여 글의 구조가 형성되는 것이다.

주제

이 글은 대비되는 두 가지의 이론을 주로 설명하고 있다. 단순히 이 두 가지 이론에만 집중하여 간단하게 주제를 나타낸다면 "행동 중심 이론과 사고 중심 이론"이라고 표현해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조금 더 글쓴이의 의도를 담은 주제를 도출하고 싶다면 "행동 중심 이론에 대한 비판과 사고 중심 이론의 중요성"이라고 표현하여 각각의 이론에 대한 글쓴이의 태도를 주제속에 표현할 수도 있다.

좀 더 완결된 형태의 주제로 나타내고 싶다면 이 글에서 논의되는 "행

동 중심"과 "사고 중심"이라는 이론이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을 배경으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인지 살펴보아야 한다. 예를 들어 요리를 할 때 행동 중심과 사고 중심의 태도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회사에서 일을 할 때 행동 중심 또는 사고 중심 중 어떤 이론이 맞다고 하는 것인지 고찰해 본다. 이 글은 "science educators"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하여 "행동 중심"과 "사고 중심"이라는 두 가지 이론이 바로 과학 학습과 연계된 것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반영한다면 "과학 학습에 있어서 행동 중심 이론에 대한 비판과 사고 중심 이론의 중요성"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사실 주제를 나타낼 때에 꼭 두 가지 이론을 모두 포함할 필요는 없다. 글쓴이가 방점을 찍고 있는 것은 분명 "사고 중심" 이론이기 때문에 이를 강조하여 단순하게 주제를 나타내도 무방하다. "과학 학습에 있어서 사고 중심의 시각이 필요하다"라고 주제를 표현한다면 글쓴이가 강조하고자 하는 방향에 주로 초점을 맞추어 주제를 표현할 수 있다.